

도약의 달
만남과 나눔의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성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요14:1)

“새기야 사방에서 와서... 붙어서 살아나게 하리라” 에스겔 37:9

새로운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채

성 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예 배 WORSHIP

August 1, 11:30 a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하나님 앞으로	사역과 행사
	찬 양 /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예배기도 / 구 민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현신과 나눔
말씀과 결단	찬 송 / 304장 -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통일찬송 404장) 봉 헌 / 홍현근 집사, 유동숙 집사 * 봉헌찬송 / 213장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통일찬송 348장)
	찬 송 / 453장 -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통일찬송 506장) 성경말씀 / 아모스 7:1-9 하나님의 은혜 : 확신과 소망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삶과 세상으로
	찬 양 * 축복기도 / 김성배 목사

*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묵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 요 찬 양 예 배

합심기도

말씀 : 김성배 목사 / 에베소서 1:23-2:7

하나님의 능력 :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8월은 “도약의 달”입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새 힘으로 독수리처럼 날아 오릅니다.

1. 2021 년 표어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해”
주제 말씀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붙어서 살아나게 하라”(에스겔 37:9)
2. 만남과 나눔의 주간 가정과 일터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합니다.
3. 제직회 다음 주(8일) 예배 후 전반기 결산 제직회가 있습니다.
4. 목회자 동정 목사님 부모님 방문 / 지수 방문 8.1-4 / 휴가 (8.23-9/2)
- 5 CUMC 사역재계 출입과 복도, comon areas 에서는 face mask 착용합니다.
서쪽 정문과 복도, 계단을 사용합니다.
6. 2세 신앙교육 자녀들의 방학 중 생활, 학업과 신앙 교육, 그리고 2세 사역자 청빙을 위해 기도합니다.
7. 성경 읽기 교회 웹사이트에 매주 성경읽기/문제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섬김이: 장경미 사모, 성경공부/박진성 집사, 웹사이트) 말씀 공부에 힘 더욱 씁시다.
8. 기도 토요일 새벽 기도(오전 7시)에 참여합니다.
9. 사역 정상화 예배, 성경공부, 새벽기도, Oikos 셀 사역, 중고등부 사역, 선교등 사역이 정상화되도록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새 사역지를 찾는데 힘을 모읍시다.

8월의 사역 - 만남과 나눔 주간(1-7) 제직회(8) 성장과 성숙 주간(8-14)
 세상의 소금과 빛된 주간(15-21) 선교 주간(22-28)
 선교 주일(29)

♥ 8월 생명의 사랑 ♥ 최성주(16) 김신실(18) 정줄리(30)

기도 제목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2.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눈)의 빠른 치유를 위해
3.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4.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5.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6. 주중 성경연구(화 & 목 / 이사야서)의 발전을 위해

예배 섬김이

주일예배기도	8/1	8/8	8/15	8/22
	구 민집사	김훈태집사	최선윤집사	최내권집사
주일헌금위원	8/1	8/8	8/15	8/22
	홍현근집사/유동숙집사		박진성집사/홍정임집사	
주일안내위원	8월			
	구 민집사			

말씀노트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하나님을 찾으면, 살리라”** / 아모스 5:4-11

다가오는 고난, 이스라엘의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모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면 살리라고 반복 선포했다. 하나님을 진실 되게 찾는 회개와 신앙회복이 이스라엘에게 절실히 요청 되었다. 분명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벧엘과 길갈과 브엘세바에서 제사도 드렸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 한분만을 섬기지도,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지도 않았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이럴 때 받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웃과 나누어야 한다. 섬김과 나눔으로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것이다. 혹시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삶에서 실천 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책망을 달게 받으며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자.

하나님의 은혜 : 확신과 소망 / 아모스 7:1-9

아모스에게 환상과 응답으로 확신과 용기를 주신 하나님

첫째 메뚜기 떼

둘째 큰 불

셋째 다림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 새로운 힘을 얻어 믿음의 경주를 달리자.

하나님의 은혜 : 확신과 소망 / 아모스 7:1-9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 낙망할 때가 있다. 기도한 후 기다려도, 충성하며 섬겨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도 열매가 없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회의적일 때도 있다. 아모스도 그러했을 것이다. 그의 경고에 이스라엘은 “우이독경”이었다. 좌절에 빠진 아모스는 하나님이 보여 주신 환상을 통해 목적과 능력을 회복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며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다.

첫 환상은 잘린 풀이 다시 돋을 때, 메뚜기 떼가 날아와 다 먹는 것이었다. 풀의 첫 수확이 공세로 바쳐져 왕의 가축과 군마의 사료가 된 후, 다시 자란 풀을 백성들이 사용했다. 그런데 메뚜기 떼가 이 풀을 먹으면, 가축들이 굶주리게 된다. 백성들이 큰 피해를 입는다.

둘째 환상은 큰 불이 지중해와 땅을 모두 태우는 것이었다. 불은 전쟁을 상징한다. 앗수르는 주전 745 과 733 년 두 번 이스라엘을 침공한다. 하나님이 재앙을 멈추어주셔서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았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며 자신을 위협하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용서를 구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는 우리 역시 이 마음을 가져야한다. 예수께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셨다.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관용을 베풀자.**

셋째 환상은 다림줄 이었다. 기준역할을 하는 다림줄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와 허물을 구주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 앞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살아야 한다. **매 순간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던 이스라엘은 앗수르의 세 번째 침공을 버텨내지를 못하고 주전 722년 완전히 멸망한다.

협박과 오명에도 굴하지 않고 사명을 다한 아모스. 하나님은 좌절했을 그를 환상을 통해 만나주셨고, 그의 간구를 응답해 주셨다.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때로는 힘들고 절망스러워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 삶과 사역이 허무하지 않으며 구원 역사의 과정이 된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전파를 위해 더욱 충성하자.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삶과 신앙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나요?

그분은 매일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려면 나는 그분을 일상 속에서 만나고 싶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면서 끊임없이 생기는 질문이 있었다.

함께 예배하며 찬양했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기쁨의 눈물로 흘렸던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들이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을 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았다. 누구보다 신실했던 친구가 취업 후 반년도 되지 않아 교회를 떠났고, 함께 임원으로 섬기던 친구가 무신론자가 되기도 했다.

만일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이려면 일상에서 만나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교회가 아닌 일상에서 수많은 시간을 산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교회에 한정된다면, 컨퍼런스나 집회, 수련회에서만 주님을 만나고 일상 속에서는 만나지 못한다면 다시 내 힘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하나님을 일상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만약 하나님이 내가 드린 기도에 응답하셔야 한다면 그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분은 내 아버지이며, 아버지는 자녀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관계적인 조건을 빼고도 내게 응답하셔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우리는 마땅히 할 말이 없지 않을까?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할 이유를 찾아보면, 그분을 만나는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약속”이라는 말은 ‘지킨다’라는 뜻을 품고 있다. 내가 드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이유와 일상 속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주님의 약속에 열쇠가 있다.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약속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으면 된다.

하나님은 성경 전반에 걸쳐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다. 주기도문만 보아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다. 주님은 일용할 양식과 용서에 대해서도 말씀하신다.

그것은 대단히 멀리 있거나 우리가 순종할 엄두도 내지 못할 만한 것이 아니다. 주님은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시지만 처음부터 지레 겁을 먹을 만큼의 순종을 요구하지는 않으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이끄신다.

이요셉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



코로나로 온라인예배가 익숙해진 요즘,
문득 다가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배를 보고있니?”

나 자신에게 이 질문을 다시금 던져봅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답에 대하여

내 삶 가운데 예배의 모습이운데 그 답이 나타나고 있는지 돌아 봅니다.

- 이정한작가 -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BIBLE STUDY MINISTER 장영현 전도사

SUNDAY SCHOOL 김진속 전도사



2020년 4월 12일

“...예배를 보고 계신가요?”
- 이정한작가 -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 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주 일 학 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15 AM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성 경 공 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